

불안의 서

Livro do Desassossego
Fernando Pessoa

배수아 옮김

봄날의 책

불안한 내 눈꺼풀이여. 72
그 피곤은 육체적인 피곤처럼 우리를
짓누르지 않고, 정서적인 피곤만큼 94
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지만 다른
어떤 피곤보다도 더욱 끈적하다.
하루는 우리의 불안 속에서 저물었 156
다.

31 그것은 내 불안의 머니면 저주다.

257 불안한 냉기가 얼음 같은 손을 내 가난
한 심장에 올린다.

361 구름... 내 느낌은 불안하고, 내 생각은
불쾌하여라.

373 하지만 그것은 하찮은 대상에게 모종의
유혹을 느끼는 바로 그런 자들만을 불
안하게 만든다.